

가장의 경제적 몰락 탓 ‘일가족 사망사건’ 잇따라

진도·용인·완도서 유사 범죄 발생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
가장 중심 심리적 고립·압박 원인
“빈곤·복지사각지대 극복책 강구”

전라남도 진도에서 가장이 가족과 함께 바다로 차량을 몰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잇따른 ‘가장 중심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의 경제적 빈곤, 가족 내 소통 단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모(49)씨는

지난 1일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억6000만원의 빚 때문에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각각 8000만 원씩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지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가장 A씨가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숨

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로, 미인가 민간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하다 관할 관청의 수사와 압수수색, 다수의 고소·고발에 직면하며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그는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전남 완도에서는 ‘제주 한 달 살이’를 떠났던 조모 씨 가족이 차량과

함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조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지었다.

세 사건은 모두 가장을 중심으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가장에게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된 가족 구조 속에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함께 생을 마감하려는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장기간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정서적 교류의 부족 등 갈등이 쌓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살인 문제는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 등 심리적 고립과 압박이 강하게 엄습한 결과”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증가시켜 극단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웃 및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N수생 독주 계속” 작년 수능도 국·영·수 고3 압도

2025학년도 대학수능 분석
대도시·사립학교 성적 좋아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에서도 이른바 ‘N수생’(재수 이상 졸업생)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물론, 영어 1등급 비율에서도 고3 재학생을 큰 격차로 앞질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공개한 수능 성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았다. 수학 역시 졸업생이 108.4점으로, 고3(96.2점)보다 12.2점 앞섰다. 영어의 경우 절대평가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졸업생은 9.6%로, 고3(4.7%)의 두 배에 달했다.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국어 99.2점, 수학 95.7점으로 집계됐다. 영어 1등급 비율은 5.1%였다.

N수생의 성적 우위는 최근 수능에서 반복되고 있다.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졸업생의 국어·수학 표준점수는 해마다 고3 재학생보다 12~13점가량 높았다. 2022학년도 국어 격차는 13.2점, 수학은 12.3점이었다. 이후 2023학년도(국어 12.9점·수학 12.4점), 2024학년도(국어 12.8점·수학 12.1점)에도 격차는 유지됐다.

●서울·사립 ‘두각’…읍면 격차 커져

학교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사립학교 학생들이 중소도시, 읍면 지역 학생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대도시 소재 학교의 국어·수학 평균 점수는 각각 98.6점, 98.8점으로, 중소도시(95.5점·95.8점), 읍면지역(92.9점·93.6점)보다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국어·수학 모두 101.7점으로 전국 유일하게 평균 100점을 넘겼다.

시도 내 학교 간 격차는 대전(국어 28.6점), 광주(수학 29.7점)가 가장 작았다. 반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서울은 오히려 학교 간 편차가 컸다. 서울의 국어 점수 격차는 53.1점으로 충남(55.9점), 경기(54.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컸으며, 수학은 무려 59.1점으로 전국 최고였다.

●남자는 수학, 여자는 국어 강세

성별 성적 차이도 나타났다. 국어는 여학생이 평균 100.8점으로 남학생(99.1점)보다 높았고, 수학은 남학생이 102.7점으로 여학생(97.1점)을 앞섰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여학생 6.3%, 남학생 6.1%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사립학교가 국공립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았다. 사립학교 학생의 국어·수학 평균 점수는 각각 4.2점, 4.0점 더 높았고, 영어 1등급 비율도 6.1%로 국공립(3.9%)보다 뚜렷이 우세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권 사전예매 18% 할인

8월30일~11월2일까지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사진)’ 관람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8월30일~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공존을 조망하는 포용디자인의 미래를 탐색한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 국제심포지엄, 특별프로젝트, 72시간 디자인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하고, 일상 속 배려와 연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꾸며진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사회와 삶의 질을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높이고나아가기
업과 사회의 혁신
을 가져오는 사례
를 담은 디자인
작품들, 지속가
능성을 제안하는
국제디자인 사례
들은 관람객들에
게 새로운 영감을

전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예매자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체 방문객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할인을 마련, 교육 현장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람 요금은 성인 기준 현장판매는 1만 6000원이며 사전예매를 하면 18% 가량 할인된 1만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사전예매 기준 각각 6000원과 3000원이다.

정성아 기자

“고1 6월 모평 영어영역 유출 정황, 대응 나서겠다”

전국 15개 시·도와 공동 대응

6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학년 영어영역 시험 내용이 종료 전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며, 광주·전남교육청도 수사 의뢰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순차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학력평가가 종료되기 전

고1 영어영역의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약 3200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험 문제와 정답이 공유된 시각은 시험이 시작된 오후 1시 10분보다 약 40분 이른 12시 30분께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전국 고교 1학년생 약 40만명이다.

이번 사실이 파악 되는대로 전국시·도 교육청은 수사 의뢰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시험의 총주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채팅방의 구성과 유포자 신원등 사실 관계 파

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교육청은 진상 파악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시험 유출과 관련해 특별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모평 유출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 등 구체적인 공동 추진 방침이 나오면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시험 내용 유출과 관련해 전남에 제보된 건은 없다”며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만큼, 사실이 확인 되면 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 빛밤 야(夜)시장’이 지난 7일 개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예술공연과 함께 만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야시장을 즐기고 있다. 만원으로 먹고 사고 즐기는 가성비(가격 대비 고품질) 야시장의 콘셉트로 열린 ‘대인 빛밤 야(夜)시장’은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토요일 밤, 광주 대인시장서 ‘만원의 행복’ 즐기세요”

동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일환
6월 한 달간…‘가성비 특화’ 구성

광주광역시 대인야시장이 초여름의 토요일 밤을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채운다.

8일 동구는 ‘대인 빛밤 야(夜)시장’을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개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야시장은

상인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에 참여해 예술 공연, 셀러 체험, 주민 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합형 장터로 꾸며진다.

‘1만원으로 먹고 사고 즐기는 가성비(가격 대비 고품질) 야시장’이라는 콘셉트로 초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특화 메뉴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 노래방 ‘상인을 이겨라’, 주차별 드레스 코드 이벤트, 메타버스 AR 화살쏘기 체험 등이 마련되며, 푸드 마차와 셀러 체험 부스도 운

영된다.

특히 첫 주 행사인 지난 7일에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걷자임’ 행사와 연계해 오후에는 금남로, 밤에는 대인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도 활발히 전개됐다.

임택동구청장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뉴얼과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인 야시장에서 더운 일상을 잠시 잊고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